세계 무형유산 한마당…9월 진도가 들썩인다

국제 전문가 모여 미래 논의…亞 전통예술 한자리에
공연·전시·체험 풍성…관광자원·문화콘텐츠 등 확장

군은 최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2026 진도국제무형문화컨퍼런스'및 '2026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행사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분야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시 진도군청

'대한민국 문화도시' 진도에서 국내외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전통문화의 미래를 논의하고, 아시아 각국의 전통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문화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논의와 공연,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지면서 진도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12일 전남광주통합시 진도군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2026 진도국제무형문화컨퍼런스'와 '2026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한다.

군은 최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행사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분야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중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제무형문화컨퍼런스는 '살아 있는 유산,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진도 민속문화가 지닌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형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전승할 것인지, 나아가 지역의 문화자산을 미래세대와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몽골·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의 무형유산 전문가와 유네스코 관련 기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무형유산의 보존과 활용,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의 논의가 끝나면 진도는 세계 전통예술을 직접 만나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뀐다.

18일부터 20일까지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국제무형문화축전은 '삶의 줄, 열두 매듭'을 주제로 공연과 전시, 체험이 어우러진 국제 문화축제로 펼쳐진다.

개막일인 18일에는 주제공연 '서천꽃밭'과 '진도씻김굿'을 중심으로 개막 무대가 꾸며진다. 진도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무대와 결합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19일에는 해외 전통예술 공연이 이어진다.

인도네시아 사만 공연을 비롯해 몽골 민속예술단, 중국 쓰촨성 천극, 인도 차우댄스 등 각국의 전통예술이 진도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낙화놀이×진도소리' 공연도 더해져 서로 다른 문화가 진도의 전통문화와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진도다시래기', '진도 만가 행렬', '대동놀이' 등이 이어지며 축전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식 공연 외에도 축제 기간 내내 독립예술 공연인 프린지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창작국악 '노을랑-세대별 아리랑', 서울행진 '진도 카니발', '진도 풍물 놀이패', 마당극 '남도천지 밥', 비눗방울 예술가 팀 클라운 등이 관람객과 만나 축제의 흥을 더한다.

공연뿐 아니라 전시와 체험 콘텐츠도 마련된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로 풀어낸 '주제전시관'과 어린이들이 예술을 놀이처럼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꾸러기 예술 놀이터', 향토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외국 공연단을 초청하는 국제행사를 넘어 진도의 무형유산을 세계의 전통문화와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컨퍼런스를 통해 무형유산의 미래를 논의하고, 축전을 통해 각국의 전통예술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방식으로 '논의와 향유'가 이어진다. 진도가 가진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와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교류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대표 무형유산을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로 확장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각 군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진도의 우수한 무형유산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제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해 진도가 가진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김한종 장성군수 "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

조계원·정진욱 의원 등 면담
산림문화원 등 핵심사업 건의

국회를 방문한 김한종 군수(오른쪽)가 정진욱 국회의원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전남광주통합시 장성군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핵심 현안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김한종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국회를 방문해 환경, 국토, 산업, 문화 등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이건태, 조계원, 정진욱, 염태영 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김 군수가 건의한 사항은 △산림문화원 조성 △첨단3지구 북측진입도로 개설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장성 베이스볼 스테이파크 조성사업이다.

'산림문화원 조성'은 축령산 편백숲 일원에 춘원숲기념정원, 교육체험쉼터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춘원'은 장성 편백숲을 일군 독림가 임종국 선생의 호다. 군은 산림문화원이 도농 상생형 체류관광 거점으로 기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광주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첨단3지구 북측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산업 물류망 확충에 필수적인 기반구축사업이다. 제조업과 연구 및 개발 산업용지 간 도로가 분리돼 대형 차량의 이동이 불편한 현 상황을 개선해 산업 간 융합에 속도를 더한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가축 분뇨와 유기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수질과 토양 오염을 막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국가의 환경 정책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장성 베이스볼 스테이파크'는 야구 전지훈련과 체류형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 복합거점이다. 장성호 체육공원과 연계해 야구장, 실내연습장, 선수단 합숙소 등을 갖춰 전남광주권의 체육 수요를 소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한다.

김한종 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현안들은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꼭 추진돼야 할 핵심사업"이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나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A등급'

전국 상위 10%…2020년부터 3200여개소 보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경험과 시민 체감형 에너지 정책을 통해 마련한 사업계획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한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개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번 공개평가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 보급효과,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나주시는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A등급에 선정됐다. 시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과 연구·교육기관이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허브 도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누적 3200여개소, 약 239억원 규모로 보급하며 생활 속 에너지 전환 기반을 확대해 왔다.

시는 이러한 사업 경험과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해 태양광 417개소, 태양열 55개소, 지열 14개소 등 총 48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나주=조함천 기자